

# 북

## Books

# 한장의 사진에서 역사를 깨닫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나 일, 사라지고 지금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와는 관계없이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지배한다. 심지어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역사'라는 단어로 바꾸면 뜻은 더 명확해진다.

'우리 안의 과거 : 미니어-메모리-히스토리'는 일본학을 전공한 오스트레일리아 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역사에 대한 체체를 과거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2004년 5월의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를 보다 '1920년대 초기 영국이 이라크에 퍼부은 폭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당시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미군의 팔루사 폭격, 이라크인의 저항, 영국군과 바스라 인근 주민과의 충돌 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1920년대 이라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튀르크 제국에 속해 있던 각지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고 이때 영국은 석유자원의 매력 때문에 이라크를 주목, 점령한다. 영국군은 이라크인과 쿠르드인의 저

### 우리안의 과거 테사 모리스 스즈키 저음

행을 폭격과 화학병기 등으로 잡아둔다. 이러한 나쁜 기억을 가진 이라크인으로서는 2004년 다시 만난 점령군 영국군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를 알자 현재가 명확해졌다.

###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역사에 대한 분석과 논의

저자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이라 마치 이미 철수한 군대가 남겨둔 지뢰를 장난감인줄 알고 손을 뻗어 주우려는 어린아이 같을 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외곡 문제로 한 동

안 떠들썩했지만 오히려 교과서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미국 남북전쟁의 역사를 이해하고, 케네디 암살 사건을 얘기할 때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를 떠올리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표현된 역사를 짚어보는 일은 중요하다. 매스미디어가 국경없이 범위하는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역사소설·사전·영화·만화·인터넷 등 다섯 가지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풀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아는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이해를 바탕에 둔 저자의 예리한 분석은 책장 넘기는 손을 바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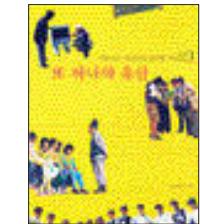
저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가다.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재미있어 하든 폐쇄해하든,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휴머니스트·2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붉은색, 황금색, 청록색 등 유럽의 10개 축제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색을 풀어쓴 여행세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규원씨가 스페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의 '색깔있는 축제'를 진술하게 그려냈다.〈시공아트·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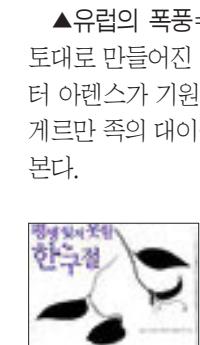
▲문명과 대량멸종의 역사=대륙판의 이동으로 지구상의 생물 90%가 사라진 것을 비롯해, 운석충돌과 용암분출, 기후변화 등으로 세 차례 대량 멸종을 겪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네번째 멸종 위기는 무엇인가. 저자 프란츠 브로스위머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문명의 진보에 대해 조명한다. 〈에코리브르·1만 3천원〉



▲또 하나의 유산='1문화재 1기념'=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기구자는 운동이다. 대학생, 사춘기 소녀,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운동에 참여해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을 가꿔가는 모습을 담은 활동 사례집을 펴냈다. 〈놀아·1만 5천원〉



▲중국사 강의=거대한 중국의 역사를 사진과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저자 저우스편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돌아보고, 그것이 중국사에 깨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중국사를 11개로 나눠 설명한다. 〈돌베개·3만원〉



▲유럽의 폭풍=독일의 국영방송인 ZDF가 방송한 시리즈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으로 ZDF '역사와 사회' 템포장으로 일하는 페더 아렌스가 기원전 120년부터 서기 800년까지 900여년에 걸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 유럽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본다. 〈코끼리·1만 3천원〉

▲평생 잊지 못할 한구절=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소중한 한마디가 있다. 배우이자 전문화부 장관인 김명곤, 배우 유인촌, 소설가 한승원 등 문화계 명사 28명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감동어린 시와 글귀들을 소개한다. 〈예담·8천900원〉



▲신화로 읽는 남성성 He=윤심리학자인 로버트 존슨의 '신화로 읽는 심리 3부작' 중 두번째 책이다. 성배신화를 통해 한 남성의 개별화 과정을 다룬다. 소년이 성장하면서 거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분석한다. 〈동연·9천원〉



▲그레이트 디자이너10=20세기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이너 아닌 사람을 위한 디자인서가 출간됐다. 저자 죄경원은 코코 샤넬, 조르지오 아르마니, 필립 스타우, 안도 타다오 등 패션, 산업, 건축 디자인계 거장들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디자인적 가치 구현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길벗·1만 6천원〉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전라도 순천 춘노 인요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벽안의 토박이 의사 호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 자라 불리는 유진 벨을 시작으로 111년, 4대째 한국에서 따뜻한 정을 키워가는 린튼 가의 한국 사랑이 그려진다. 〈생각의 나무·1만 원〉

그들은 어떻게  
'강한여자'가 되었나  
'힐러리처럼 일하고  
'힐러리처럼 일하고...'



2008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로템 클린턴 상원 의원, 그녀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로부터도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자신감이다. 권력에 대한 애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탓에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아도 억척스럽게 견뎌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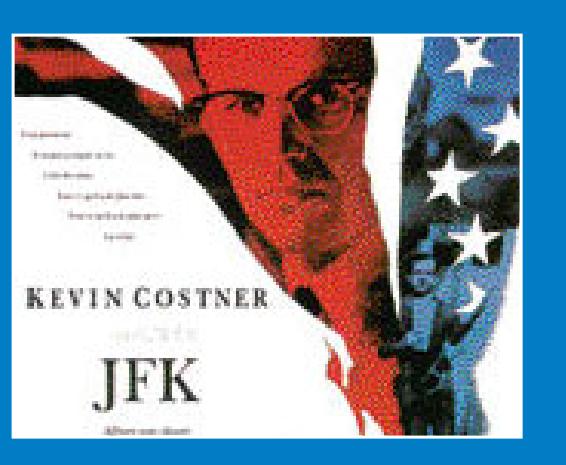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콜린 리스 미 국무장관은 또 어떤가. 여성과 흑인이라는 역경을 딛고 오늘날 세계 최대강국의 2인자로 국제무대를 종횡무진한다.

힐러리, 콘디, 피터 드러커, 스티븐 코비,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세계 1%에 속하는 '최고'들 과의 만남과 경험을 아우른 책은 왜 여성들도 애심을 키워야 하는지 명쾌하게 일깨워준다.

〈웅진지식하우스·9천800원〉



사람들은 종종 역사를 표현한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인식하기도 한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전 모습과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 포스터.



###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

#### 김용석외 저음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미술이 수학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 고전미술의 3대 미덕이라는 비례·대칭·조화의 개념은 기학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유정창은 수학자 계양희씨를 만나 수학과 미술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감증을 풀었다.

"사람을 알기 위해 동물을 연구한다"는 동물학자 최재진을 만난 소설가 공지영은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학과 인문학은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할까,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은 10명의 인문학자가

###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과 소통

#### 인문학자 10명이 쓴 유쾌한 과학 이야기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10명의 과학자를 만나 나눈 대답의 내용을 각자의 스타일로 풀어 쓴 책으로 2004~2005년 '한겨레'에 연재됐던 글들을 수 정 보완했다.

신화학자 정재서(이화여대교수)는 전문학자 박창범을 만나 우주론과 천조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판지일보 총수 김여준은 위성사업단장 이주진과 우주 개발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뇌과학자 신희섭을 만난 철학자 김용석(영산대

교수)은 뇌와 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역사학자 김기봉(경기대 교수)은 나노화학자 유통과의 대답에서 미시사(微視史)와 나노과학의 관계를 들여 본다.

그밖에 입자물리학자 손동철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이거룡 교수, 로봇공학자 양현승과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공동대표, 철학자 이진경과 생명과학자 황우석 박사의 대답 내용을 만날 수 있다.

대답 말미에 실린 '쉽게 읽히는 과학의 밑자취' 코너는 진화이론 등 10개 테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돋는다. 대답 내용이 조금 짧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겨레 출판·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신만만의 평가·분석·전략·자산관리·자산분석  
광주·전남권토지구획  
Tel : 062-873-9174, 016-757-8800

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충전기문

금매 땅  
첨단최고요지  
3번도로접  
580여평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240평 270평 510평 367평 110평 300평 1300평 15평 600평 16평 650평 35평  
103평 111평 115평 102평 200평 250평 기타 350평 29평 300평의 기타

수완택지 개발지구  
이주주택지, 협의안도인ベ지  
생활대체용지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균형 122평, 80평  
상가 4차선 접 1200평 1800평

우량임야  
전수원 복지시설 공장 축사 등  
담임 25만평 장성 9만평 보상민영화  
영업 102평 순정 40만평 기타

골고연습장, 물류유통센터  
공장  
약 8000평 4000평 5000평 10평 25평  
장성 3000평 허남공단 980평

건물매도  
첨단지구 A급 상가  
5평 8평 13평 20평 25평 35평 66평 기타

장성·담양권 토지 건설

· 광주·전남권 토지 건설 ·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  
투자유망불건 터량 보유(전면평 ~ 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존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께  
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질 아시다시피 중개사들은 협력을 성과의 필수요소이고  
우리의 성공은 모두 중개사님들 덕분입니다. 저의  
물건은 전술중개와 같은겁니다. 제 물건을 소개해주시면 이미  
책정된 임도인께서는 난개를 제 수수료를 나누드리겠습니다.

▶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1층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1층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1층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1층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1층 전시회 1층 소주초프 35평 각종  
프랜차이즈와 쇼케이스 보증금 100만원

저는 양수인측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설비·물류·권리금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상가전용 전속중개계약 업소입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사슴을 짖는 자 태산을 보지  
못하는 자 눈의 이익에 연연  
하지 않습니다.  
over view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 mobile) 010-7288-4351 • 4342-894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상가를 내놓으실 때는 최소 3개월 전에 연락주세요!

에센공인중개사 박사장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 373-3939, 웹.011-616-8698  
(암주동 서광주우체국앞)

#### 전속중개계약 취급업소입니다.

#### 공장 금 매매

소재지 : 회순군 능주면 징정리 7-19-1필 능주농  
공지면내

면 적 : 토지면적 3,973평 공장면적 1,482평

구 조 : 철골조 및 슬래브조

매매가 : 매매가격 12억 5,000만원

#### 건물 매매 (2동)